

LEADER OF
A PREMIER LIFESTYLE
SINCE 1990

2015 SSE

2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The new Audi A3 Sedan

ART

에디터 이영균



권용주 작,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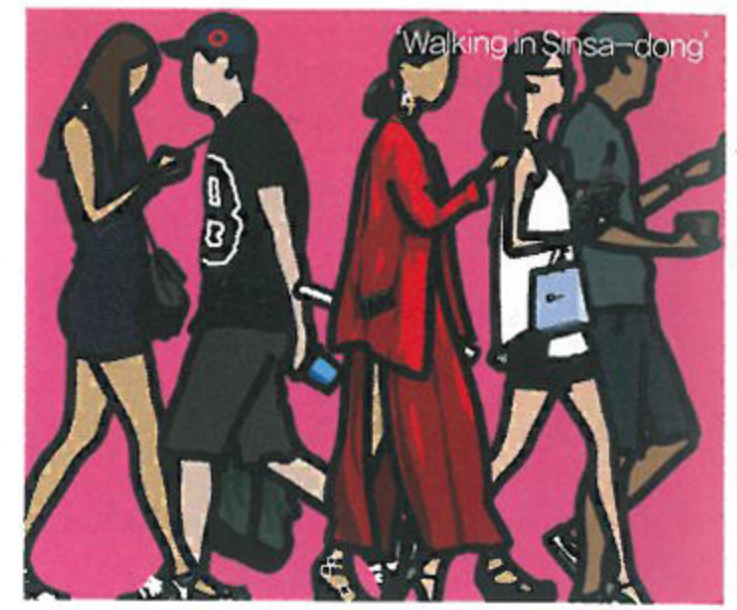
<본업: 생활하는 예술가>전
예술 활동(본업)과 생계를 위한 부업의 경계가 모호한 삶을 사는 4명의 젊은 작가, 권용주·안데스·이수성·이우성의 단체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의 하나로,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국내 미술 행정의 허점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예술가들의 고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산갤러리(2월 22일까지) 문의 708-5050

<Full-time Job: Artist Makes a Living> There are four young artists who are not sure whether they make a living or do a part-time job as artist. This is a group exhibition of Yongju Kwon, Andes, Suseong Lee and Wooseong Lee. As part of the 3rd 'Doosan Curator Workshop', this exhibition makes you think about the loopholes of the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art industry. You may also find what kind of concerns young Korean artists have today. Doosan Gallery(until Feb. 22) INQUIRY 708-5050

<줄리언 오피>전

영국의 대표적 팝아트 작가 줄리언 오피의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작은 주로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에서 현대인의 일상,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며 걷는 군중의 모습으로 구성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개인전을 위해 오피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新作 LED 회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갤러리(2월 13일~3월 23일) 문의 735-8449



<Julian Opie> Julian Opie, one of the most famous British pop artists, has a solo exhibition. The collection deals with everyday life of people in the busy city today. The pictures particularly capture the crowd passing through the city. Opie will release new LED paintings, which has Seoul as a backdrop, for his second solo exhibition in Korea.

Kukje Gallery(Feb. 13~Mar. 23) INQUIRY 735-8449



<스칼렛 호프트 그라플랜드>전

설치와 사진 장르의 영리한 조합과 풍경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칼렛 호프트 그라플랜드의 첫 한국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녀가 2004년부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수유지를 여행하며 지행대응 프로젝트